

보도시점 2023. 5. 3.(수) 10:30 배포 2023. 5. 3.(수) 9:40

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, 아시아개발은행-한국 기후기술허브 (K-Hub) 설립 합의

- 양자면담 계기로 기후기술허브 설립합의, 한국신탁기금 1억불 출연,
아시아개발은행 다자기금 공여 약정 등을 통해 한-아시아개발은행 협력 강화 -

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3일(수) 오전 인천(송도)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(Asakawa Masatsugu) 아시아개발은행(the Asian Development Bank)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고, 아시아개발은행(ADB)-한국 기후기술허브(K-Hub*)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하였다.

* ADB-Korea Climate Technology **Hub**(K-Hub)

기후기술허브(K-Hub)는 한국정부와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,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 아시아개발은행은 기후관련 사업을 향후 1,000억불('19~'30년 누적)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기후분야에 집중하여 기후 선도자(Climate Bank)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.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및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, 녹색기후기금(GCF) 등 기후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.

기후기술허브(K-Hub)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·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하고 연결하여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 또한 기후분야 아시아개발은행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여,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. 아울러 기후 참모집단(싱크탱크)로서

아시아개발은행의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,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. 한국은 기후기술허브(K-Hub)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써 기후이슈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, 아시아개발은행 최초 한국 사무소인 기후기술허브(K-Hub) 개소를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.

기후기술허브(K-Hub) 소재지는 서울이 될 예정으로, 2024년 개소를 목표로 아시아개발은행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
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한국 단독 신탁기금인 이아시아(e-Asia) 지식협력기금에 6년간 ('23~'28년) 1억 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.

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(AP3F*), 아시아개발은행 벤처(ADB Ventures), 아시아개발은행 프론티어 퍼실리티(ADB Frontier Facility) 등 아시아개발은행의 다자기금에도 참여를 약정했다.

* A sia Pacific Project Preparation Facility

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(AP3F)는 아시아-태평양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관합작투자(Public Private Partnership) 사업 준비 지원 등을 위해 '16년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 다자기금으로, 현재 일본, 캐나다,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. 한국은 이번에 5백만 불 신규 출연을 약정하며, 향후 아시아개발은행이 수행하는 민관합작투자(PPP) 사업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.

아시아개발은행 벤처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 기술, 핀테크, 농업, 보건 등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'20년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 투자기구이다. 한국정부는 설립시 한국모태펀드와 함께 1,500만 불 규모로 출연했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300만불 추가 출연을 약정했다. 국내기업 '이그린글로벌'과 '이노씨에스알'이 아시아개발은행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.

아시아개발은행 프론티어 퍼실리티는 금번 연차총회에서 발족하는 아시아 최빈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기금으로, 공여국 뿐 아니라 개도국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여 수원국-공여국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예정이다. 현재 캄보디아, 라오스, 미국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, 한국은 공여국 중 최초로 100만 불 출연을 약정했다.
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 이상규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 류소윤 (lyusoyoon@korea.kr)
			한예린 (yerin1209@korea.kr)

